

學問과 生活

哲學의 濫尊觀念에 抗하여 (5)

金午星

生活이 要求하는 自然은 그것을 征服하며 人間的 條件에 依하여 變化시키며 거기에 創造를 加하기 위한 生活 素材로서인 것이다. 人間生活의 最初의 形態는 人間과 自然과의 決鬪다. 그것은 自然이 우리의 生活地盤이며 生活素材가 되는 點에서만 아니고, 自然이 때로는 暴威를 가지고 人間의 生存을 逼迫하는 까닭이다. 이리하여 自然을 人間의 自己네 條件에 依하여 變化시키는 대서 人間의 生活史는 形成된 것이다. 哲學은 이러한 人間 實存의 表現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生活이 自然을 征服키 워야는 때로는 自然에 順應하여야 하는 것과 가티 哲學은 現實의 理解를 必要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現實을 享受하기 爲해서가 아니고 現實을 變化시키며 現實을 發展시키며 새로운 現實을 創造키 위한 手段으로서만 要求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實存哲學이 現實에 立脚하면서도 現實을 受動的으로 反映하거나 靜的으로 解釋하고 있는 온갖 機械論的 現實主義와 絶對的으로 區別되는 點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實際에 잇서 從來의 온갖 哲學觀念論, 理想主義까지도 內容에 잇서는 한 개의 卑俗한 現實主義에 不過하였든 것이다. 發展의 論理로서 辯證法을 大成한 헤-겔도 『現實적인 것은 理想的이며, 理想的인 것은 理想的이라』하야, 哲學은 불탄 뒤의 殘灰를 묻으는 것과 가티 時代의 情熱이 다 식은 뒤에 그 時代精神의 影姿를 體系的으로 敍述하는 것이라 하였다. 哲學이 現實의 反映이나 理解에 끈친다면 우리의 實生活은 무엇 때문에 哲學을 要求할 것인가? 哲學이 單純히 우리의 知識慾을 滿足시키기 위해서 存在한다면 그 存在의 意義가 너무도 薄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哲學이 單히 現實의 反映이나 現實의 解釋에 끈치는 것은 現實을 正當하게 把握하는 것이 못된다. 왜-그러나 하면 現實은 靜的이 아니요 發展的인 것이며, 現實은 哲學의 範疇에 들어마칠 만치 合理的인 것이 못되고 非合理, 矛盾의 結晶인 까닭에 現實을 問題 삼는 것은 곧 現實을 變化시키는 行爲가 되고 마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現實主義(機械論, 觀念論, 理想主義 등을 包含한)가 歷史의 頽發期에서 문

허저가는 現實을 維持하려는 한 개의 이데오로기-的 魔術에 不過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歷史의 轉換期에 서있다. 이때의 哲學의 課題는 現實의 擁護에 있지 안코 現實의 克服에 있다. 現實의 克服을 通하여 現實 때문에 杓무쳐 있는 X를 發見하며 創造하지 안흐면 안된다. X는 어떤 形而上學的 實體가 아니고 現實世界的 內面에서 자라나고 있는 한 개의 可能的 世界다. 있는 世界가 아니고 잇서질 世界다. 잇서질 世界는 價値哲學에서 말하는 일은마 當爲(Sollen)와 가튼 主觀的, 論理的 命令이 아니고, 現實의 壓力 때문에 埋沒되어 있는 그 自身 高次的인 現實이다. 可能性은 非現實性이 아니고 高次的인 現實性을 意味하는 것이다. 高次的 現實은 現實의 克服에서 만 到達할 수 있는 未來의 世界인 것이다. 哲學은 이 X의 世界, 未來의 世界, 可能的 世界를 探求하며 開拓하며 創造하는 것이 今日 哲學의 根本使命이다. 여기서 哲學은 解釋으로부터 批判에 認識으로부터 創造에의 轉換을 꾀하지 안흐면 안되게 된 것이다. 한 개의 現實을 創造할 것. 이것이 우리들의 生活態度인 同時에 또한 우리들의 哲學의 根本課題이다. 이것은 우리의 主觀의 設定이 아니고, 우리의 生活史와 우리의 哲學史의 嚴肅한 命令인 것이다.

(完)